11/22/26

설교 제목: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누가복음 21 장 10- 28 절

환난의 징조(마 24:3-14; 막 13:3-13)

10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11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12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 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 가려니와

13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14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15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16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 주어 너희 중의 몇을 죽이게 하겠고

17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18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19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루살렘의 환난과 인자의 오심(마 24:15-21, 29-31; 막 13:14-19, 24-27)

20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21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22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23 그 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24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25 일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26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27 그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28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2026 년 추수 감사절 예배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 드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다스리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 놓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든지 마지막 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여지껏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처에서 전쟁 소식이 들려 옵니다.
제 3 차 세계 대전 발발이 임박해 보입니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중국 일본 유럽의 국가들은 이례적으로 자국민에게 최소 3 일에서 10 일치, 국가에 따라서는 한 달치 이상의 식량과 비상 물자들을 준비하라고 권고해 놓은 상테입니다.
11 월 17 일에는 FEMA(미국 연방 재난관리청)과 FCC(연방 통신위원회)가 'EAS(전국 비상 경보 시스템)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란과 미국 간의 군사적인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며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11 월 15 일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IRGC)가 바레인 내 미군 기지를 드론으로 공격하자, 17 일 미국이 항공 모함 3 척을 파견해 이란 미사일 기지가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남부 게슘섬 일대에 대대적인 공격을 퍼부었고, 18 일에는 이란이 쿠웨이트와 바레인 등 중동 내 미국 동맹국을 상대로 폭격을 가함으로 약 2 개월 만에 다시 무력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11 월 16 일 CNN 은 미국 정보 당국이 이란이 미국 워싱턴에 Dirty Bomb(방사능 살포 무기나 화학 무기)을 터뜨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사살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역사상 유래없는 경제 봉쇄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이란이 미국 본토에 국지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이 이 계획을 실행하는 순간 온 세계는 순식간에 전쟁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전쟁 소식 외에도 미국의 주요 인프라가 잇따라 멈추면서 연쇄적인 사이버 공격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11 월 12 일 부터 36 시간 동안 전 세계 70 개국 이상에서 Outlook(아웃룩), Teams(팀즈), Exchange Online(익스체인지 온라인), Share Point(세어 포인트), Copilot(코파일럿) 등 주요 Microsoft 365 업무용 서비스가 마비되었습니다.
17 일에는 Apple On Line (ICloud, Apple Store, Apple Pa, Apple Music 등) 온라인 서비스 장애가 발생되었습니다.
같은 날 미국 메릴랜드 주 포트미드 본부에 위치한 NSA(미국 국가안보국)의 최고 기밀 정보 공유망 NSA Net 가 작동이 중단되었습니다.
Microsoft 측이나 Apple 측, 그리고 정보 당국에서는 사이버 공격이나 AI 결함이 아닌 기술적인 문제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또한 11 월 13 일 오후 부터 4 시간 20 분에 걸쳐 미국 내 모든 항공기 이륙이 전면 금지(Ground Stop)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대규모 항공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항공기 이륙이 전면 금지되기는 2001 년 9 월 11 일 테러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백악관은 사이버 공격이나 해킹이 아니고, 미국 정부 계약 업체인 L3 해리스가 항공 통신망의 노후된 구리선을 광섬유로 교체하며 새 라우터를 설치하던 중 기존 관제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려 통신 장애가 발생한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FBI 는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히 유나이티드 항공은 16 일 오후에도 자체 전산 오류로 항공기 25 편이 취소되고 수백편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항공기의 최종 무게 산정 시스템 부분에서 기술적 오류가 발생한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글쎄요....

은행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1 월 16 일 오전부터 미국 최대 은행인 JP Morgan Chase (JP 모건 체이스)의 전산 장애로 Chase(체이스)은행은 물론 Bank of America(뱅크 오브 아메리카), Wells Fargo(웰스파고), US 뱅크 등에서 온라인 뱅킹과 송금 거래가 대규모 지연되었습니다.
JP Morgan Chase 는 사이버 공격이나 외부 해킹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발표를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최근에 있었던 파라과이 사태를 생각하며, 가슴 조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을 언급함으로써 사회적인 긴장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공적인 방송에서 보도된 사실입니다.
다만 제가 이것들을 다시 강조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함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 이 모든 상황이 가리키고 있는 최종 방향을 인지하고, 준비하자는 취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왔느니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림 신앙은 세상의 종말의 공포에 떨며 집 안에 비상 식량을 쌓아두는 신앙이 아닙니다.
재림 신앙은 머리를 드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환난 날에 대해 주신 말씀을 다시 새겨 봅니다.

환난의 징조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과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10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11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리고는 이 모든 일 전에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12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 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 가려니와

13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14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15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이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도록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등 모든 이들로부터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16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 주어 너희 중의 몇을 죽이게 하겠고

17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18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럼에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끝까지 믿고 기다리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19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20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루살렘 성은 천혜의 절벽 지형, 정교한 수로 시스템, 그리고 다중 방어 성벽으로 말미암아 고대부터 중세까지 난공불락의 요새로 불렸습니다.

그런 고로 당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50m 의 유다 산맥 고지대에 위치하였으며, 성의 세 면이 깊고 가파른 계곡(동쪽으로 기드온 계곡, 남 서쪽으로 힌놈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또한 암반을 뚫어(히스기야 터널 또는 실로암 터널이라고 함) 성벽 밖에 있던 유일한 수원인 기혼 샘의 물을 성 안 실로암 못까지 끌어다 놓았고, 성 내부 곳곳에 빗물을 저장하는 거대한 지하

저수조를 구축하여 수 개월에서 수 년에 걸친 포위전에도 식수 고갈 없이 버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 헤롯 대왕과 오스만 제국의 슐레이만 대제 등을 거치며 두껍고 높은 석조 성벽과 감시탑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이 예언은 A.D. 70 년 로마 디도(Titus)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병들에 의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내를 떠날 것을, 그리고 성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내로 들어가지 말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21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주님의 경고를 들은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떠나 요단 동편으로 피신하여 위험을 모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내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은 로마 군대에 의해 잔인하게 살육을 당했습니다.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당시 로마 군대에 의해 살해된 유대인이 110 만명이 넘었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약 9 만 7 천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날이 바로 예루살렘에게 임할 '형벌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23 그 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24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거부한 예루살렘이 맞이할 비극적인 심판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날에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임산부들과 젖먹이 아이들까지도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남은 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라 하십니다.
여기서 '이방인의 때'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방인들에 의해 예루살렘이 짓밟히는 기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동시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확장되는 기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때'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언급된 예언은 항상 이중적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이 예언도 이중적인 예언입니다.
AD 70 년 예루살렘이 로마 디도(Titus) 장군에 의해 멸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종말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발생할 징조에 국한되지 않고, 우주적인 차원의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25 일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26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천체가 흔들리고, 땅과 바다에서 예수님의 재림 징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마태는 이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발하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게 된다 (마 24:29)"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징조들이 일어나는 그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27 그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과는 달리 모든 인류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에수님은 이런 일련의 일들이 나타나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가 가까왔음을 알라고 하십니다.

28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공포이겠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징조임을 알기에 오히려 소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예고하신 그 날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일들입니다.

그 날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환난의 날이 되겠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는 기쁨과 감격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에 우리는 눈물로 인내하며 기다려 온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그 나라에는 공의와 평강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으며, 아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낙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을 고대하며,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